



릴레이칼럼

단미사료 30년사 ⑮



양 흥 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산지원
검역1과장 기술서기관

먼저 한국단미사료협회 창립 30주년을 축하합니다. 회장님으로부터 단미사료 30년사에 대한 회고 원고 청탁을 받았을 때, 단미사료 산업 발전에 기여한 바도 별로 없어 미안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저와 한국 단미사료협회가 인연을 맺은 것은 1980년 2월부터 1984년 12월까지 약 4년간으로 그 당시 농림부 축산국 사료과에 근무하면서입니다.

그 당시 사료과는 농림부에서 양정과 및 비료과와 더불어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료과에서 관할 협회로는 한국사료협회와 한국단미사료협회 2개협회만 있었고 한국사료협회는 많은 회원과 재정적으로 부유하였으나, 한국단미사료협회는 고작 상근직원으로는 현 단미사료협회 유동준 회장님이 전무로 계셨고 안학노과장님 그리고 여직원 1명 뿐으로 매우 재정이 영세하였으며 살림은 대부분 어분공장과 인산칼슘공장 2~3개소로부터 받는 회비로 어렵게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은행 온라인으로 회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안학노 과장님이 1달에 1번씩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회비를 받았으며 밤에는 여관에서 분실우려가 있어 담요밑에 넣어놓거나 허리에 차고 잠을 잤습니다.

그 당시 단미사료협회의 유일한 사업으로는 이북으로 넘어가는 정어리를 잡아 사료원료로 이용하여 수입어분을 줄이고 외화를 절약하여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시던 유동준 회장님의 노력으로 약 3억원 정도를 저금리로 융자 사업을 매년 하였습니다. 그 당시로는 큰돈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중규모 사료공장 1개소를 건립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단미사료라고는 유일하게 어분, 인산칼슘, 어죽 흡착사료, 그리고 보조 사료로는 향미제와 가축위생과로부터 동물 약품으로 분류하다가 이관된 조라이트(Zeolite)와 대용단백(조라이트와 요소혼합)이 전부인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타민제, 효소제, 생균제, 아미노산제, 미량광물질등 그 종류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유동준 회장님의 열과 성 그리고 피나는 노력이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80년대 초 한국단미사료협회를 회상하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배합사료의 원료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라고는 조라이트(Zeolite), 맥강, 미강 등 일부분이고 옥수수, 밀, 대두박 등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외국의 기상변화, 작황에 따라 항상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1981년 수입사료 가격이 폭등하여 사료구입이 어려울 때도 있었고 또한 정부에서 옥수수 안전기준가격제도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국제 옥수수 가격이 1톤당 \$190 수준으로 높게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 2006년도까지는 \$140 수준이었으나 2007년도에는 작황부진 등의 사유로 \$230 수준으로 사료가격 인상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축산여건은 갈수록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과거에는 값싼 노동력과 퇴비 등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입원이 되었으나, 지금은 국내 인부는 기피산업으로 구하기 어렵고 외국의 노동력을 이용하고 퇴비는 처리하는데 오히려 많은 비용이 투자되며 또한 주위에서는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축사를 설립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외국으로부터 소 및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수입 자유화 되었고 또한 외국으로부터 구제역(FMD), 조류인플루엔자(AI) 등 해의 악성전염병이 유입하여 발생되었고 또한, 돼지 소모성 질병 등 신종질병이 발생되어 축산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양축농가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저렴한 사료를 생산 양축농가에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위생적이고 우수한 품질의 단미사료공급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단미사료 산업의 발전이 곧 우리나라 축산발전과 직결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으시고 더욱 발전이 있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㉟

